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(가)** 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. 충충한 울 속에서 **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**가는 **이 집의 지손(支孫)\*들.**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**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(光榮)을 지키어 주는 신주(神主)\*들**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리어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**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(祭床)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.**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.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.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\*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**동네 백성들을 곧-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\*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**고.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빤들빤들한 달걀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. **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-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**은 **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**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**작인(作人)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.**  - 오장환, ｢종가｣ -  \*지손: 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.  \*신주: 죽은 사람의 위패.  \*뒷밥: 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.  \*모말굴림: 곡식을 담는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.  **(나)**  노래는 심장에,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, 노래로써 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|  |  | |  | |  |  | | | **[A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|  |  | |  | | **[B]** | |  | |  |  | |  |  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.  - 최두석, ｢노래와 이야기｣ -  -신석정, ｢역사｣- |